

나는 도덕적 인간인가?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밀하게 숭배되는 악은 정치권력과 이권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보여 준다. 인간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은 정치권력의 기초라고 하지만, 최근의 사태는 심각하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시민들이 분노했고, 촛불을 들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농단과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우리 시대의 고민을 인스턴트식 만족을 추구하는 피상성(superficiality)에서 찾는다. 그는 피상성을 우리 시대의 저주라고 부른다. 그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지적인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들'(deep people)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그의 지적은 왜 최고의 인재들이 도덕적인

파산을 겪는지, 혹은 왜 우리 사회가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지에 대한 답으로도 볼 수 있다.

포스터가 말하는 '깊이'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공감하는 감정, 관심사,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인터넷 매체와 뉴스를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사건들, 예컨대, 승객이 비행기를 놓칠까 봐 심장마비를 일으킨 택시기사를 두고 자기 짐을 챙겨 떠난 것이나 오리를 산 채로 두 동강내어 키우던 개에게 먹인 사건, 친자식 혹은 입양한 딸을 굶기고 학대한 것 등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 주는 사건들이 여럿 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 말이다. 이런 사건들은 마치 하늘의 별을 받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물론 이런 고통과 악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해 한숨짓게 된다. 많은 선한 사람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무의미한 고통을 경험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도덕적 수치심을 느낀다. 인간은 칸트(Kant)의 말처럼 '뒤틀린 목재'(crooked wood)인 것 같다. 삶에 긴장과 압력이 가중되면 옹이가 튀어나온다.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다. 타인이 자신의 내면을 보아 주길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타인의 외모를 먼저 본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도덕적 자아를 역사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캄보디아의 비극은 한 마디로 '킬링필드'로 정리된다. 독일의 아픈 기억이 아우슈비츠라면, 캄보디아의 아픈 기억은 킬링필드이다. 이것은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 학살되어 매장된 곳을 말한다. 폴 포트(Pol Pot) 정권은 170만~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을 학살하였고, 현재까지 2만 개 이상의 킬링필드가 발견, 발굴되었다. 폴 포트는 분명 나쁜 지도자였지만, 그가 의도한 목표는 국가에 이로운 것이었다.

역사학자 폴 존슨(Paul Johnson)은 킬링필드는 철학적 토론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한다. 킬링필드에 참여한 인물 중 두크(Duch, 본명 캉 켉 이우 Kaing Guek Eav)가 있다. 그는 크메르 루즈의 살인고문관이었다. 그는 죽음의 공장이란 S-21 교도소에서 1만 2천 명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전범 재판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변론했다. "고문과 처형이 사악한 짓이란 건 알았지만 혁명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폴 포트와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를 근대화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봉건주의와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사회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국가가 이 둘로 인해 병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이 품었던 이념(Ideology)이 아니었다. 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이라는 과오는 이념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폴 포트나 두크, 혹은 그들의 동료들은 숭고한 이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왜 자신들이 의도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까?

역사적으로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 나치 독일의 101 예비경찰대이다. 1942년 이들은 남성뿐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라도 유대인이라면 모두 총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참여와 회피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끔찍한 학살을 선택했다. 사살을 회피할 경우, 동료들에게 나약하고 이기적인 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점차 전문 살인자가 되어 갔다.

500명으로 구성된 101 예비경찰대가 한 일보다 더 잔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이다. 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 고급장교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다. 이스라엘 모사드에 체포되어 1961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그것을 참관했다. 재판 때 아이히만의 일관된 주장은 이것이었다. "나는 전쟁 규칙과 정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아렌트는 재판과정을 분석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보고서를 썼는데, 그녀가 사용한 표현이 독특하다. 바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었다. 아



이희만은 괴물(monster)로 여겨졌지만, 그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군인이었다. 그에겐 프랑스 제3공화국 사형집행인 아나톨 데블레(Anatole Deibler)의 모습이 묻어난다. 데블레는 395명의 처형을 집행했는데, 평소에 그는 “아침마다 애완건을 산책시키고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가는 근면한 공무원이자 성실한 가정”이었다.

분명 악은 지금도 도처에 편재해 있지만 갑자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드물다. 두크는 부패한 국가에 짜증이 났기에, 그것을 혁신시키는 공산주의란 조직에 충성했다. 아이희만이나 101 경찰대대 대원들도 스스로 학살자 또는 회피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학살’이란 용어 대신 ‘최종해결책’(Final Solution)이라는 행정적 용어로 자신들에게 최면을 걸었다. 집단성이 그들의 관료주의 안에서 힘을 얻자, 도덕이란 반성적 능력은 사라졌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악의 평범성

요즘 동네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면서 안전해졌다. CCTV나 타인의 시선은 직접적 처벌 없이도 규제의 역할을 하므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미셸 푸코

는 『감시와 처벌』에서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도덕적 규칙을 생각만 해도 배려나 정직성은 강화된다. 시험 때 ‘부정행위자가 되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대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줄었다고 한다. 우리의 삶은 도덕이라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변덕스런 악과 방종을 즐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있음에도,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한다. 이런 일들은 일상의 가벼운 일탈이다. 하지만 익명성, 도시화, 집단성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구체적인 위협 혹은 선택적 죽음의 원인이 된다. 아파트 경비시스템의 자동화는 경비원의 해고를 불러왔다. 대형마트의 등장은 동네 상권을 위축시킨다. 우리의 일상에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온다.

우리의 일상 속 선택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매장에서 밀려난다. 2004년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퍼센트만이 행동으로 옮겼다. 공공의 적은 범죄자만이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 심지어 특정한 생각도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제품은 분리, 배제, 도태된다. 이것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계로만 읽는다.

하버드대 영문과 교수 중 일레인 스캐리(Elaine Scarry)는 문학작품이 아니라 ‘고문’과 ‘고통’이란 주제를 연구한다. 『고통을 겪는 신체』(The Body in Pain)는 그 연구의 결과물이다. 여기서 스캐리는 질문(심문)을 부상을 입히는 행위로, 고문행위를 인간만의 부도덕성을 보여 주는 증거로 해석한다. 고문은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문은 공공의 적이 지

만 테러란 예외상황이 오자,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은 공동선으로 용납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나의 도덕성은 평균 이상인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몇 해 전부터 몇몇 학자들이 ‘탈감정 시대’ 혹은 ‘탈도덕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종종 그 선택은 차선책 혹은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테러, 불안정한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가 그러한 선택을 정당화시킨다. 사람들은 삶을 성장이 아닌 성공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장기보다는 단기결과에, 상위보단 하위 가치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이라는 심리학자의 복종실험과 필립 짐바르도(Phillip Zimbardo)의 스톤포드 감옥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선(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부도덕한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을 자신의 말로 이해했을 때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은 충돌하고 뒤섞이고 합쳐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 눈에 들어오게, 귀에 속 박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고민했고 또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이다.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도덕적 가치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덕이란 눈이 멀었음에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의가 개인의 승패를 가른다. 행동에는 ‘똑똑한’ 행동이 있고 ‘올바른’ 행동이 있다. 똑똑한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말한다. 올바른 행동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올바른 행동보단 똑똑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 쉬고 있다.

『눈먼 자들의 도시』란 소설이 있다. 포르투갈 작가 주세 사라마구(José Saramago)는 ‘모두가 눈이 멀고 단 한 사람만이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다. 한 남자가 교통신호를 기다리다가 눈이 먼다. 그런데 실명이 전염되면서 도시 전체가 공포에 떠다. 결국 눈먼 자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고, 그곳에서 힘센 강패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식량을 독점한다. 후에 실명이 회복된 뒤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간사회는 불안정하고 모든 것엔 양면성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그것이 언젠가는 사회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이다. 변화란 여러 힘들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역사는 어떤 정치적 신조나 그것에 봉사하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일상의 악에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글 |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르다티 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